제 8 강 한 새 사람: 파트 I -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음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신 것에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성경적인 기반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언약과 그 안에 있는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회복시킬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성경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이 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방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교회의 상태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I. 하나님의 계획

A.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자신의 독생자를 위한 하나의 몸, 하나의 신부를 준비하길 원하신다. 만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9 <u>그 뜻의 비밀</u>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u>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u> (엡 1:9-10)

B.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둘이 아닌 하나의 백성을 가지게 되심을 말씀하셨다.

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u>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u> (요 10:16)

C. 사도 바울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 하나됨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될 것을 언급했다 (엡 1:10).

10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한글 KJV, 엡 1:10)

D.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됨이 있기를 기도하셨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이 하나됨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전세계 구원의 열쇠가 됨을 알고 계셨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u>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u> 21 <u>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u>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u>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u> 23 <u>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u> (요 17:20-23)

E. **시편 133 편 – 복이 명령되는 것**은 하나됨으로 인해 부어진다.

F. 사단은 이러한 하나됨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교회가 그 시작부터 깨어지고 분열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은가?

II. 문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큰 (그리고 일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ñ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ò 초대 교회 때의 큰 (그리고 동일하게 일치를 이루기 어려웠던) 질문은 정 반대였다, ñ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ò

우리가 현재 이렇게 정 반대의 상황에 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또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정 반대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III.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

1 세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개념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열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언제나 있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에 미칠 것을 약속해 오셨다. 그리고 이방에게 빛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u>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u> (창 12:3)

6 … <u>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u> (사 49:6)

3 <u>나라들[한글 KJV, 이방인들]은 네 빛으로</u>,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 60:3)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u>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u> 하니 (눅 2:29-32)

그러나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방법이었다.

A. 유대인의 구원

교회는 초기에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이스라엘만을 향함을 말씀하셨다.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 15:24)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보내실 때,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을 지시하셨다.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 10:5-7)

아주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 유대인들을 향해 사역하실 때, 그분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며,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 부어짐을 명확히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유대인을 향한 것임을 명확히 말씀하셨다 (요 4:22; 마 15:21-28).

B. 이방인들의 위치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방인들의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매주 명확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원래 어떤 상태인지를 잘 정리해준다: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 2:11-12)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엡 4:17-18)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구별될 것을 명령하셨다.

[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 [26]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 20:23-26)

유대인 랍비(사도 바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대 (행 22:17-24)

새 언약 시대 이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었다. 성령님이라는 새 언약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길 뿐이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왔다 (창 17:12). 유대인들에게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방인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많은 이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다.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10 …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행 2:5-11)

C. 이방인들을 향한 빛ï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부분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할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거나,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초기 믿는 유대인들조차도)이 예상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1.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2. 온 이스라엘이 구원될 때, 메시아(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국 통치를 세우실 것이다. 즉,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다.

3. 이 새로운 시대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며 (사 2 장), 열방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4. 이로 인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며 (사 2:2-4; 슥 8:20-2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나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D. 지상 대 명령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u>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u> 하시니라 (행 1:8)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ñ이교도ò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그분이 자신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1. 예수님 때에는 대략 이스라엘 밖에 4 백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인구보다는 많았다).

2. 만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세워지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야 한다면, 복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밖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음을 항상 명확히 말씀하셨다.

4. 예수님께서는 열 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말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마 10:5-6).

5. 초기 제자들은 ñ부정한ò 이방인들과 연결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적인 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6. 오순절 때, 그리고 그 직후의 교회는 명확히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7.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흩어질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행 11:19).

IV.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

이 일반적인 생각은 초기 성도들의 생각 속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교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필요했다.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u>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u> [2] <u>그가 경건하여</u> 온 집안과 더불어 <u>하나님을 경외하며</u> <u>백성을 많이 구제하고</u> <u>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u>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u>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u>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u>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u>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한글 KJV,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네게 말해 줄 것이라." 하더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행 10:1-8)**

A.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를 세심하게 선택하셨다. 고넬료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1. 경건한
2. 하나님을 경외하는
3. 유대인들에게 관대함 (고넬료가 누가복음 7 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일 가능성은?)
4. 기도의 사람

B. 천사의 방문ï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알고 계심을 선포하신다

C.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5 절): 천사는 순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고 계신 것이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며, 구원이 열방(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을 유대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 첫번째 이방인 회심자를 위해 사도 바울이 아닌 유대인을 향한 사도인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글 KJV,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23]**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행 10:9-23)

D. 베드로가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자기 방문하신다!

E. 베드로는 명확하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F. 베드로는 동일한 환상을 세 번 보며, 이로 인해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G.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필요했다. 즉, 이는 그에게 **매우** 일반적이지 않고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24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26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행 10:24-33)

H.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고넬료는 자신이 듣게 될 메시지가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렀으며,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회성의 예외적인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

I.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것을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이는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의. 이 구절은 유대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구절이다).

J. 베드로는 여기서 여전히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는, ñ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ò하고 묻고 있다 (29 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신 그 백부장일 수도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못하는 듯 보인다.

K. 고넬료는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의 메세지를 들으라고 말했음을 알려준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풂을 금하리요 하고 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행 10:34-48)

L.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

M. 베드로는 여전히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옴을 설명한다.

N. 성령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에 임하신다. 베드로가 따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할 사이도 없이 말이다.

O. 이 일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표적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겔 36:22-32), 그분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위에 방금 임하셨다.

P. 첫번째 이방인 회심자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며,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Q. 교회는 베드로가 한 일에 놀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함께 기뻐했다 (행 11:1-18).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할례와 모세의 율법 없이 자신의 나라 안으로 부르신 이 일은 믿는 유대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드라마에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도록 이끄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 1:8 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믿는 유대인들 안에 선례를 보여주셔야 했고, 유대인이 직접 증거하는 방법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심도 명확히 보여주셔야 했다.

V. 바울 – 이방인을 향한 사도

A.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하심으로 바울을 구원하셨다 (행 9:1-6).

B.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명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u>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u>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행 9:15-16)

C.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명령을 이해했고, 전심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신비를 이해하고 있었다.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u>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u> 47 <u>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u> 하니 (행 13:46-47)

1 <u>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u> 말하거니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u>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u>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u>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u>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 <u>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u>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엡 3:1-7)

D.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은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았다.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3:48)

VI. 예루살렘에서의 토론

A. 많은 유대인 믿는 자들(사도들의 일부를 포함해서)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행 15:1)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혼동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 2:11-13)

B. 많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행 15:2)

C. 이 문제는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했기에, 예루살렘 리더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었다. 이는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쉽게 합의가 나지 않는 부분이었다.

D. 이 문제에 대해 주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베드로(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였으며, 그는 고넬료와의 일을 통해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심을 설명했다.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 15:6-11)

E.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추가로 설명했으며, 이는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행 15:12)

F. 야고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말씀하시는 바임을 확인해준다. 다만 예상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었다. 이는 이방인이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집(이스라엘)의 동일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선례가 세워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행 15:13-15)

VII.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렇다면 이방인 성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가?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한글 KJV,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13-22)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엡 3:6)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엡 4:4-5)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롬 11:17-18)

A. 전에는 ñ나그네ò이자 ñ외인ò이었던 이들, ñ먼데 있던ò 이들은 이제 ñ가까워졌으며ò 하나님의 집(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일원이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B.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권리와 특권과 책임감이 함께 부어지게 된다.

C. 우리는 물리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원해 어떤 나라에 속해있지 않았더라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D. 바울의 예:

1. 그는 로마 시민이었다.

2. 그는 민족적으로 로마인이 아니었다 (빌 3:5; 행 22:3).

3. 그는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행 22:3).

4. 그는 로마에서 살지 않았다.

5. 그는 로마에서 태어난 여느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6. 로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이 행사될 수 있었다 (행 16:37-40; 행 22:25-29).

E. 과거 영연방의 예 (영연방에 대한 역사적/개인적인 평가보단, ǒ소속됨과 특권ô의 의미에서 이를 살펴보자)

1. 모든 영연방 시민들에게는 영국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여권, 영연방 국가 내에서의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했다.

2. 어떤 이가 케냐, 인도, 호주, 런던에서 태어났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영국 시민과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3. 이들은 원래 영국인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영국인 대우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영국인과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다.

4. 그들은 ñ접붙임ò 받았다. 그들은 동일한 시민이었으며, 함께 유업을 누리고 받는 자들이었다.

5. 영국이 없었다면 영연방은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국은 특별한 한 나라로써 존재했다.

   영국은 본국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위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영연방이 됨으로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는 영국에게 속한 것이었다. <u>이를 부인하는 것은 영연반의 일부가 됨으로 얻는 모든 유익의 기초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u>. 영국이 없이는 영연방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가 없이는 로마 제국이 존재할 수 없듯이). <u>영국은 영연방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 모든 문화와 산업, 지적 능력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온 이들은 영국 사람들이었다. 영연방에서 영국인들의 특별한 위치를 부인하는 일은 말도 안되는 오만한 무지와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이다</u>. (Gruber p.125)

F.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모든 권리와 특권으로 유익을 얻지만, 이스라엘은 별개의 한 나라로써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롬 11:18)

1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u>범사에 많으니</u>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롬 3:1-2)

3 <u>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u> … 4 <u>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u>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롬 9:3-5)

G.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의 백성(둘이 아니라)을 소유하시는 것이다.

H.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또는 이방인이 된다.

I. 교회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된다.

J. 믿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의 약속을 동일하게 공유한다. 하나님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가족, 하나의 백성이 존재한다:

1. 가까워졌음
2. 한 새 사람
3. 동일한 시민
4.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
5. 건물 전체
6. 거룩한 성전
7.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8.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됨
9. 하나의 가족
10. 한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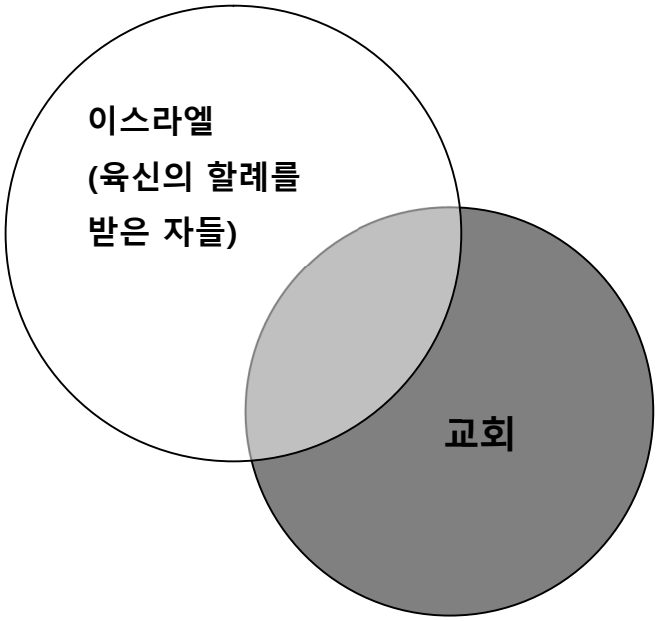
이방인 성도들은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의 자손들과 같은 온전한 시민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시민이 된다 (Gruber p.127)

K.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것이 우리에게 이동해 온 부분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안으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 안으로 말이다. ñ**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ò처럼 말이다 (요 4:22). 따라서 우리는 원가지를 향해 자긍할 것도 아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부르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

L.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에 표시를 가지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며** 그들이 가진 부르심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즉, 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고전 7:18-20)

M. 완성된 관계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 6:15-16)

[1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뿐이니라 [16]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한글 KJV, 갈 6:15-16)